코트디부아르 국채 17% 깜짝수익… 국경넘은 투자 짭짤

저금리 시대 재테크

❷ 신흥국 채권형 펀드

평균 수익률 연초 이후 10% 넘어서
신흥국 펀더멘털 개선 등에 수익↑
해외자금 하반기에 유입 증가할 듯

미국이 7월 31일(현지시간)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해외 각국이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돼 해외채권형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중에서도 신흥시장 국가에 투자하는 신흥국(이머징)채권형펀드가 선진국에 투자하는 글로벌채권형펀드에 비해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이 4% 높은 10%대를 기록하면서 재테크수단으로 관심이 뜨겁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신흥국채권형펀드 평균수익률은 연초 이후 10.57%를 기록해 10%를 넘어섰으며, 1년 평균수익률도 8.49%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글로벌채권형펀드는 연초 이후 평균수익률 6.48%, 1년 평균수익률 6.63%를 기록했다. 글로벌채권형펀드 수익률은 지난 1년간이나 연초 이후 큰 변화가 없지만, 신흥국채권형펀드는 연초 이후 수익률이 2% 이상 높은 것을 보여준다. 신흥국채권형펀드 설정액도 지난 1년간 1622억원 증가했는데, 연초 이후 1584억원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7월 31일 기준 해외채권형펀드 평균수익률〉 단위: 억원·%·개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설정액	순자산	연초이후	1년
해외 채권형	글로벌채권	72	49,066	52,600	6.48	6.63
	신흥국채권	29	4,658	4,137	10.57	8.49
	북미채권	14	2,814	3,077	7.52	7.91
	아시아퍼시픽 채권	22	2,505	2,676	10.28	9.94
	글로벌하이일드채권	31	9,992	10,767	9.09	3.77
	해외채권기타	-	-	-	-	-
	전체	169	69,035	74,257	7.66	6.28

/자료=에프앤가이드

NH-아문디자산운용 김두영 글로벌투자부문 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수익이 나는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데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해 호재가 있고, 최근 펀더멘털이 좋아 기대 수익률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각국 금리인하가 이어지며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신흥국에 흘러들어가 신흥국 자산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채권형펀드 중에는 회사채에 비해 부도위험이 적은 국공채펀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 시중에 나와있는 29종 펀드 중 설정액 10억원 이상 신흥국채권형펀드 1위는 17%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누버거버먼이머징국공채플러스증권사투자신탁' 상품이다. 자산운용사들은 해외채권펀드 운용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손잡고 있는데 이 상품은 약 350조원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누버거버먼과 협약을 통해 운용된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채권운용팀 장대환 매니저는 "이 펀드는 60여 개국 300개 이상 채권에 편입돼 한 종목당 비중이 1%도 안 돼 분산투자가 잘 돼 있다"며 "다른 회사들은 중국·인도·브라질 등 비중이 높지만 우리는 이 국가들 비중이 10위권 밖으로, 중국은 6% 대 수익을 낸 데 비해 우리가 투자한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는 올해 17% 수익을 냈으며, 아제르바이잔 13% 등 수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장 매니저는 향후 신흥국채권형펀드 전망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머징국가인 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터키·브라질 등도 금리인하를 단행해 이머징채권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신흥국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졌고 각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안정화돼 이익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 미국 투기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인 하이일드채권이 이머징채권 이상으로 수익률이 높았는데 올해 신용스프레드(신용등급이 다른 채권간 금리 차이)가 140 이상 낮아져 이제는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봐야 한다"며 "반면, 이머징 채권은 신용스프레이드가 70~80 정도만 낮아져 추가여력이 있어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시때때로 사고파는 주식에 비해 투자자들은 해외채권형펀드에 대해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는 보통 2년짜리 상품이 많고, 3년 미만을 일컫는다. 3년에서 7년은 중기, 10년이 넘어가면 장기로 여겨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단기나 중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추세다.

신흥국채권형펀드는 글로벌채권형펀드에 비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채권 가격 변동, 신용위험의 변동이 큰 만큼 투자시 위험요인을 잘 따라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펀드가 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환헤지가 가능한 지, 달러채권표시인지, 로컬통화표시채권인지도 꼭 살펴봐야 한다.

김두영 CIO는 "신흥국 로컬통화는 통화 자체의 변동성이 커 유의해야 하고 달러 강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달러표시채권을 추천한다"며 "신흥국들은 정치적 리스크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대환 매니저도 "현시점에서는 로컬 통화 채권이 수익률이 좋지만 길어야 하반기까지 정도이고, 내년까지도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며 "채권은 7년씩 투자하는 상품이 많은 만큼 안정성이 큰 달러표시채권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펀드 투자시 절세요소를 꼼꼼히 따져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미래에셋대우 WM강남파이낸스센터 최철식 프라이빗뱅커(PB·이사)는 "올해 브라질 국채 투자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비과세였기 때문"이라며 "연금저축계좌·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사용하면 해외채권형펀드도 비과세로 운영되며, 변액연금·변액유니버설보험을 활용할 수 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원산지 속이는 '라벨갈이' 특별단속

중기부 등 5개부처 석달동안 단속
적발시 과징금 3억, 5년이하 징역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을 속이는 상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일명 '라벨갈이'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첩보·통관검사·신고 등을 통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범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라벨갈이를 근절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기부 외에 관련 법령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으로 진행된다.

단속기관인 경찰청·관세청·서울시는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한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내 라벨갈이를 '기획첩보 테마'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통관검사를 강화해 라벨의 제거가 용이한지,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7월 1일부터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 검사 강도도 높이고,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도 단속대상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에서 범죄 취약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수사를 집중한다.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류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진 시민 100명으로 시민감시단도 구성한다.

중기부는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해 홍보해 인식개선에 나선다. 전국 소공인 의류 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련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도 배포하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한다.

라벨갈이로 적발되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도 한다. 관세청에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서울시에서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학보 차관은 "의료 제조업 종사자 중 10명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이 약 91%로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라벨갈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美 금리인하 약발 미미… 벼랑 끝 韓 증시

8월 증시 전망

日 화이트리스크 제외조치 등
코스피 2000선 붕괴 우려도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1일 오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의 변수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도 암울한 전망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달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붕괴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중 무역협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국내 상장사 2분기 실적 부진 등 끊이지 않는 악재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8월 코스피지수 밴드를 1900~2080pt로 내다봤다. 또 KB증권은 1980~2140pt, NH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은 1990~2130pt로 예상했으며 대신증권은 1980~2100pt로 집계했다.

국내 증시가 이같이 '사면초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오는 2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코스피는 5%, 코스닥은 10%나 하락했지만 주당순이익 하향이 지속되면서 가치평가 기준점인 12개월 선행주가수익비율(12MF PER) 10배 수준은 1880선까지 내려왔다"며 "8월 또한 다시 어려운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한다면 투자심리 위축은 더욱 거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보다 부진하면서 소외현상 또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펀더멘털,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 글로벌 최하위에 위치한 이익 모멘텀 때문"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반도체 업종의 차별적인 강세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국내증시의 상대적 약세 현상은 향후 더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경제가 미중 무역협상 변수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졌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 수급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 이탈,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 상장사 실적 전망치 하락 등이 증시에 대한 매력이 떨어뜨렸다.

이달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전문가들은 코스피 투자에 있어서도 '배당주'를 핵심으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지형 한양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00선 초반 내지 하회 시에는 분할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판단. 해당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 시총 상위 대형 IT주, 고배당주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했다. 박 연구원도 "아직은 경계적 관점이 유리하다"며 "고배당주 중심 개별 접근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